

제 4 교시

사회탐구 영역(윤리와 사상)

성명  수험번호  -  제 ( ) 선택

윤리와 사상

1. 다음 가상 편지를 쓴 고대 동양 사상이 강조하는 삶의 태도로 가장 적절한 것은?

사랑스러운 제자 ○○님께  
 지난 번 편지에서 질문한 이상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해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것은 조용히 앉아서 우리를 구속하는 일체의 것들을 잊어버리는[坐忘]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세속을 초월하여 무엇에도 얽매이지 않는 정신적 자유의 경지[逍遙遊]에 도달하게 되며, 주위 환경에 의해 본심을 어지럽히지 않고 도(道)와 일치하게 되는 이상적인 삶의 실천이 가능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 ① 본성을 교화하여 타고난 욕망을 모두 없애야 도에 따를 수 있다.
- ② 고통의 원인을 제거하여 열반에 도달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③ 만물을 평등하게 인식하고 상대적인 차별에서 벗어나야 한다.
- ④ 잃어버린 마음을 되찾아[求放心] 사단(四端)을 형성해야 한다.
- ⑤ 팔정도(八正道)를 통해 깨달음을 얻기 위한 수양을 반복해야 한다.

2. (가)의 고대 서양 사상이 갑, 을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탐구하고자 할 때, A~C에 들어갈 옳은 질문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가) 갑: 아무도 자발적으로 악인 행위를 하지 않는다. 아름다운 것과 좋은 것을 아는 사람은 결코 그 반대의 것을 택하지 않을 것이다.  
 을: 결핍으로 인한 고통이 제거된다면, 단순한 음식도 우리에게 사치스러운 음식과 같은 쾌락을 준다. 빵과 물은 그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가장 큰 쾌락을 제공한다.

(나)

〈범례〉  
 □ : 출발 조건  
 ◇ : 판단 내용  
 → : 판단 방향  
 ◡ : 사상의 입장

〈보기〉  
 가. A: 쾌락을 주지 못하는 덕도 그 자체로 가치를 지니는가?  
 나. B: 앎[知]이란 인간의 경험 자체에 내재되어 있는 것인가?  
 다. C: 쾌락의 크기는 필수적인 욕구를 충족한 정도와 비례하는가?  
 라. C: 명예욕으로부터 비롯된 쾌락도 좋음의 가치를 지니는가?

- ① 가, 라                      ② 나, 다                      ③ 나, 라
- ④ 가, 나, 다                ⑤ 가, 다, 라

3. 중세 서양 사상이 갑, 근대 서양 사상이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갑: 이성적 피조물은 영원한 이성 안에 참여한다. 이를 통해 이성적 피조물은 적절한 행동과 목적에 대한 자연적 성향을 지닌다.  
 을: 수동적인 정념은 우리가 그것에 대해 명석판명한 관념을 형성하는 순간 더 이상 수동적이지 않다. 정념에 대해 더 잘 알수록 정신은 그만큼 정념의 영향을 덜 받게 된다.

- ① 갑: 인간의 목적은 외부의 도움 없이 성취할 수 있는 것에 국한된다.
- ② 갑: 자연적 성향을 따르는 것은 인간으로서의 의무에 반한다.
- ③ 을: 자유 의지 없이 자유인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는 인간은 없다.
- ④ 을: 모든 존재가 신의 계획에 따라 필연적으로 움직이는 것은 아니다.
- ⑤ 갑과 을: 이성을 통해 신을 완전하게 이해하고 파악해야 한다.

4. 고대 동양 사상이 갑,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갑: 천하를 얻는 데에는 원칙이 있다. 백성을 얻으면 이미 천하를 얻은 셈이다. 백성을 얻는 데에는 원칙이 있다. 그 마음을 얻으면 백성을 얻은 셈이다.  
 을: 천하를 얻으려면 예(禮)를 따라야 한다. 예는 나라를 다스리는 근본이다. 사람에게 예가 없으면 제대로 살아갈 수 없으며, 임금이 예를 따르지 않으면 사직을 훼손하게 된다.

〈보기〉  
 가. 갑: 도덕성을 회복하기 위해 놓아버린 마음을 다시 잡아야 한다.  
 나. 을: 예를 기준으로 귀천을 구분하는 것은 사회에 혼란을 일으킨다.  
 다. 을: 나라의 수명은 예가 아니라 군주의 군사력에 달려 있다.  
 라. 갑과 을: 인간에게는 선천적 도덕 인식 능력이 주어졌다.

- ① 가, 다                      ② 가, 라                      ③ 나, 다                      ④ 나, 라                      ⑤ 다, 라

5. 근대 서양 사상이 갑,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3점]

갑: 이성 혼자서는 그 어떤 의지 작용의 동기가 될 수 없으며, 이성은 의지를 지도함에 있어서 감정에 반대할 수 없다. 이성은 정보들을 우리에게 전해줄 수 있을 뿐이다.  
 을: 산술과 기하학이 다른 학문들보다 더 확실하다. 이 두 학문은 순수하고 단순한 대상만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경험이 불확실하게 만드는 것을 전혀 전제하지 않기 때문이다.

- ① 갑: 도덕적 선(善)의 감정은 판단자의 개별적 이익에 기인한다.
- ② 갑: 덕(德)의 식별은 이성을 통한 관념들의 비교에 의존한다.
- ③ 을: 회의의 과정에서 수학적 공리는 의심의 대상이 될 수 없다.
- ④ 을: 생각하기를 멈추면 내가 존재하는 것의 확실성은 사라진다.
- ⑤ 갑과 을: 이성을 통해 원인과 결과의 실제적 결합을 알 수 있다.

## 2 (윤리와 사상)

## 사회탐구 영역

6. 한국 유교 사상가 갑,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갑: 사단은 이(理)가 발하고 기(氣)가 그것을 따르니, 본래 순선하고 악이 없다. 그러나 이가 발한 것이 완수되지 못하고 기에 가려지면 불선이 된다.  
 을: 이는 무형(無刑)이고 기는 유형(有形)이므로 이는 통하고 기는 국한된다. 이는 무위(無爲)이고 기는 유위(有爲)이므로 기가 발하면 이가 타게 된다.

- ① 갑: 형태가 없는 이는 통하지만 형태가 있는 기는 국한된다.
- ② 갑: 이는 기와 달리 작용성을 지니므로 사단의 근거가 된다.
- ③ 을: 사단은 칠정 가운데 인욕(人慾)이 섞이지 않고 나온 것이다.
- ④ 을: 칠정 중에 선한 것보다 사단 그 자체가 도덕적으로 우월하다.
- ⑤ 갑과 을: 이는 기의 동정(動靜)에 따라 선하거나 악하게 된다.

7. 다음을 주장한 한국 유교 사상가의 입장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하늘은 사람에게 자주지권(自主之權)을 주어 그가 선을 행하고자 하면 선을 행하게 하고 악을 저지르려 하자 하면 악을 저지르게 하여, 선악을 하려는 방향이 고정되지 않게 하였다. 그런데 선을 행할 수도 악을 행할 수도 있는 이치가 이미 반이 섞여 있다면 그 죄는 마땅히 반감되어야 할 듯하지만, 죄를 지어 그 책임을 피할 수 없는 이유는 성이 선을 좋아하기 때문이다.

<보기>

ㄱ. 모든 인간이 사단의 감정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은 아니다.  
 ㄴ. 사단의 단은 실마리(緗)가 아니라 시작(始)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ㄷ. 사덕은 사단과 달리 본성에 내재하지 않고 실천을 통해 형성된다.  
 ㄹ. 선악을 좋아하며 덕을 따르고자 하는 성향이 영지의 기호이다.

-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ㄷ
-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8. 갑, 을은 근대 서양 사상가들이다. 을의 입장에서 갑의 입장에 대해 제기할 수 있는 비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갑: 인간은 쾌락과 고통의 두 주권자의 지배하에 있다. 마땅히 해야만 하는 것으로 인도하며 의무를 결정짓는 것은 오로지 고통과 쾌락뿐이다.  
 을: 행복은 쾌락의 향유와 고통의 부재를 의미한다. 어떤 종류의 쾌락이 다른 종류의 쾌락보다 바람직하고 가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유용성의 원리와 양립 가능하다.

- ① 쾌락을 비교할 때 쾌락의 순수성을 고려해야 함을 간과한다.
- ② 도덕적 평가의 근거는 행위 규칙이 아니라 결과임을 간과한다.
- ③ 행복에 기여하는 경건함의 가치도 계산할 수 있음을 간과한다.
- ④ 도덕 원리는 사회적으로 보편화될 수 있어야 함을 간과한다.
- ⑤ 인간은 동물의 쾌락과 질적으로 다른 쾌락을 느낄 수 있음을 간과한다.

9. 다음은 현대 사회사상가 갑, 을의 가상 대화이다. 갑, 을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외부에 의한 억압이나 타인 때문에 어떤 영역이 일정한 한도 이상으로 축소될 때 우리는 강제당하거나 노예 상태에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개인적인 영역이 존재해야 합니다.

원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억압할 수 있는 주인이 존재한다면 종속당하는 사람은 두려움을 가지고 항상 움츠러드는 노예 상태에 처하게 됩니다. 인간은 누구나 타인에 의한 자의적인 지배 없이 스스로 운명을 통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보기>

ㄱ. 갑: ‘~로부터의 자유’로 표현되는 자유가 참된 자유이다.  
 ㄴ. 갑: 권력 기관의 부재는 진정한 자유 달성을 위한 필요조건이다.  
 ㄷ. 을: 정치 참여는 인간이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방법에 포함된다.  
 ㄹ. 갑과 을: 인간이 하는 행동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10. (가)의 현대 사회사상가 갑과 을, 사회사상 병의 입장에서 서로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F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가)	<p>갑: 세상은 개인적 이익과 사회적 이익을 항상 조화시키는 방향으로 작동하진 않는다. 개인이 고립된 채 자신의 이익을 추구할수록 사회적 이익의 실현은 희미해진다.                  을: 더 큰 자유에 대한 약속은 사회주의 선동의 가장 효과적인 무기의 하나이지만, 자유로 가는 길로 약속된 것이 실제로는 노예로 가는 첩경이다.                  병: 우리는 전체주의적 계획과 자본주의적 계획 모두에 반대한다. 그 이유는 이 두 계획이 생산의 공적 통제와 그 결과의 공정한 분배를 배제하기 때문이다.</p>
(나)	

- ① A: 국가는 자유 시장이 최대한 효율적으로 작동하도록 해야함을 간과한다.
- ② B, D: 시장에서의 자유로운 경제 활동이 인정되어야함을 간과한다.
- ③ C: 계획 경제와 개인의 경제적 자유가 양립할 수 있음을 간과한다.
- ④ E: 공정한 소득 분배를 위해 정부가 다양한 규제를 도입할 수 있음을 간과한다.
- ⑤ F: 효율적 자원 배분은 국가의 시장 개입에 대한 정당한 명분이 될 수 없음을 간과한다.

11. 다음을 주장한 근대 서양 사상가의 입장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인간에게 있어서, 그리고 모든 이성적인 피조물에게 있어서 도덕적 필연성은 강요이자 강제이다. 그리고 그것에 근거한 모든 행위는 의무로 생각되어야 한다. 따라서 도덕 법칙은 하나의 완전한 존재자의 의지에게는 신성(神性)의 법칙이지만, 모든 유한한 이성적 존재자의 의지에게는 의무의 법칙이다. 오로지 이성적 존재자의 의지에서만 선과 마주칠 수 있다.

—<보 기>—

ㄱ. 인간과 달리 신에게는 도덕 법칙이 의무로 부과되지 않는다.  
 ㄴ. 보편화 가능한 준칙이 도덕 법칙에 위배될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  
 ㄷ. 자연적 경향성이 인간 행위의 동기가 되는 것은 불가하다.  
 ㄹ. 도덕적 행위가 행위자의 행복 증진에 기여하는 경우가 있다.

- ① ㄱ, ㄹ                      ② ㄴ,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ㄷ                ⑤ ㄱ, ㄴ, ㄹ

12. 그림은 서술형 평가 문제와 학생 답안이다. 학생 답안의 ㉠~㉣중 옳지 않은 것은? [3점]

서술형 평가

㉠ 문제: 동양 불교 사상가 갑, 을의 입장을 비교하여 서술하시오.

갑: 마음의 흐름이란 허구적 분별의 과정이다. 그렇게 허구적으로 분별된 외부의 대상은 실재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일체는 내 마음이 그려 낸 표상일 뿐이다.  
 을: 어떤 한 가지 법도 인연으로부터 생기지 않는 것이 없으니, 모든 법이 공(空) 아닌 것이 없다. 모든 것이 공하지 않다면 생겨남과 없어짐도 없고 사성제도 없다.

㉡ 학생 답안

갑, 을의 입장을 비교해 보면, 갑은 ㉠ 모든 현상은 마음의 작용을 통해서만 존재한다고[一切唯心造] 보며, ㉢ 요가 수행을 통해 식(識)을 변화시켜 분별이 없는 마음(智)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 반면에 을은 ㉡ 모든 사물은 독자적인 고유한 성질(自性)을 가지지 않는다고 보고, ㉣ 오직 법(法)만이 자성을 가질 수 있다고 본다. 한편 갑, 을은 모두 ㉣ 중생 구제에 힘써야 한다고 본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13. 근대 서양 사상가 갑,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3점]

갑: 사람들은 사회 계약을 통해 자신의 생명과 자유, 재산의 보존을 추구한다. 자연 상태에서 인간은 자유롭고 자신의 인신과 소유물에 대한 절대적 주인이지만 그 향유가 불확실하고 타인이 내 것을 침해할 위험으로부터 자유롭지 않다.  
 을: 사람들이 사회 계약으로 잃는 것은 자연적 자유, 마음이 끌리면 취할 수 있는 모든 것에 대한 무제한적 권리이다. 개인 힘의 범위에서만 누리는 자연적 자유와 일반 의지를 기반으로 누리는 시민적 자유는 구별된다.

- ① 갑: 국가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입법부를 교체할 수 없다.  
 ② 갑: 자연 상태에서는 타인으로부터의 권리 침해에 대한 보복이 불가하다.  
 ③ 을: 군주의 존재는 일반의지가 지배하는 공화국과 양립할 수 없다.  
 ④ 을: 사유재산의 발생 이전에는 개인이 임의로 자연물을 취득할 수 없다.  
 ⑤ 갑과 을: 국가의 입법권과 행정권간에는 우열관계가 성립한다.

14. 고대 서양 사상가 갑,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3점]

갑: 인식되는 것들에 진리를 제공하고 인식하는 자에게 인식 능력을 부여하는 것은 '선(善) 자체'이다. 선 자체는 인식과 진리의 원인이지만 인식과 진리보다 더 훌륭한 것이다.  
 을: 쾌락을 멀리함으로써 절제 있게 되며 두려운 것들을 견뎌냄으로써 용기 있게 된다. 품성적 덕은 습관의 결과로 생겨나는 것이다.

- ① 갑: 현실 세계에서 선(善) 자체를 인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② 갑: 전체 시민이 정치에 참여하는 민주정이 최악의 정치 체제이다.  
 ③ 을: 좋음[善]을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 기준은 존재하지 않는다.  
 ④ 을: 선은 사물에 존재할 수 없으며 인간만이 가질 수 있는 가치이다.  
 ⑤ 갑과 을: 유덕한 행동이 무엇인지에 대한 앎 없이 덕을 실천할 수 없다.

15. 고대 서양 사상가 갑, 중세 서양 사상가 을의 입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갑: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이 너가 바라는 대로 일어나기를 추구하지 말고, 오히려 일어나는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는 대로 일어나기를 바라라. 그러면 너는 행복해질 수 있다.  
 을: 신은 변함없는 선으로 영원하고 불멸하다. 신은 세상을 천상의 국가와 지상의 국가로 나누었고, 인간 삶의 모든 역사는 천상의 국가의 승리로 귀결된다.

- ① 갑: 인간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자연의 질서에 어긋나지 않는다.  
 ② 갑: 인간이 아닌 신에 대한 사랑만이 자연스러운 감정에 속한다.  
 ③ 을: 모든 인간은 자유 의지 남용으로 인한 원죄를 가진 존재이다.  
 ④ 을: 존재하는 모든 선한 것은 절대적 존재 없이 존재할 수 없다.  
 ⑤ 갑과 을: 이상적 삶에 이르기 위해서는 신에 대한 바른 인식이 요구된다.

# 4 (윤리와 사상)

# 사회탐구 영역

16. 중국 불교 사상가 갑, 한국 불교 사상가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갑: 자성에는 잘못됨도 없고 어리석음도 없고 어지러움도 없다. 자성을 스스로 깨달으면, 단박에 깨닫고[頓悟] 단박에 닦으니[頓修] 점진적으로 닦는 점차[漸次]는 없다.  
 을: 언 연못이 다 물인 줄은 알고 있어도 따뜻한 기운을 빌려야 녹는 것처럼 사람의 마음이 본래 참되다는 것을 깨달을지라도 불법(佛法)의 힘을 빌려서 닦아야 하는 것이다.

- ① 갑: 불성을 깨닫는 것과 꾸준한 수행(漸修)은 차례대로 해야 한다.
- ② 갑: 자신의 불성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
- ③ 을: 선정과 지혜의 수행을 병행하는 것이 돈오에 이르는 길이다.
- ④ 을: 참선 수행을 위주로 하되 교학(敎學)을 경시해서는 안 된다.
- ⑤ 갑, 을: 깨닫기 전의 인간의 마음은 불성이 존재하지 않는 무명의 상태이다.

17. 현대 서양 사상가 갑,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3점]

갑: 도구와 같은 존재에서는 본질이 존재에 앞서지만, 개별적 단독자인 실존에서는 존재가 본질에 앞선다. 인간은 우선 실존하고 스스로 자유로운 선택을 통해 자신을 만들어 나간다.  
 을: 인간은 항상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개인은 주체적인 결단을 회피하면서 죽음에 이르는 병, 즉 절망에 빠지게 된다.

- ① 갑: 규범의 속박에서 벗어나 신에게 스스로 자신을 바쳐야 한다.
- ② 갑: 주체적으로 살기 위해서 모든 사회적 삶을 거부해야 한다.
- ③ 을: 인간의 삶은 보편적이고 추상적 관념으로 파악될 수 있다.
- ④ 을: 윤리적 실존으로서 양심에 따르는 인간도 죄를 지을 수 있다.
- ⑤ 갑과 을: 불안이 인간의 실존에 미치는 영향은 존재하지 않는다.

18. 중국 유교 사상가 갑,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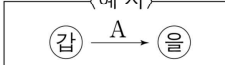
갑: 인의예지는 성(性)이며 인으로 사랑하고 의로 미워하고 예로 사양하고 지로 아는 것은 마음이다. 성이란 마음의 이치[理]이며 정이란 마음의 작용[用]이고 마음은 성정의 주인이다.  
 을: 인의예지라는 이름은 이미 드러난[已發] 마음에 대해 붙인 것이다. 성은 마음의 본체[體]이고 천리이며 양지(良知)이다. 양지 외에 따로 지가 없으니 학문의 근본은 치양지이다.

<보 기>

ㄱ. 갑: 격물(格物)이란 뜻이 향하는 대상을 바로 잡는 것이다.  
 ㄴ. 을: 측은지심은 성(性)이 겉으로 드러난 덕(德)에 속한다.  
 ㄷ. 을: 이치를 궁구했다는 것은 이치를 실천했다는 것이다.  
 ㄹ. 갑과 을: 성인과 일반 백성이 부여받은 기질은 차이가 없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9. (가)의 근대 한국 사상가 갑, 을의 입장에서 서로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B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	갑: 나는 동쪽 나라 조선에서 태어나 동쪽에서 도를 받았으니 도는 비록 하늘의 도라 할 수 있지만 학문으로 말하면 서학과 이름을 달리해야 한다. 더욱이 땅은 동서가 나뉘어 있으니 어찌 동쪽을 서쪽이라 할 수 있겠는가? 을: 수신제가(修身齊家)하여 나라가 바로잡히면 서양 물건은 쓸모없게 되어 교역할 일도 없어진다. 교역할 일이 없어지면 그들의 기괴하고 음탕하며 교묘한 물건은 구매되지 않게 된다.
(나)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align-items: center;">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border-radius: 50%; width: 40px; height: 40px; display: flex; align-items: center; justify-content: center;">갑</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math>\xrightarrow{A}</math>  <math>\xleftarrow{B}</math> </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border-radius: 50%; width: 40px; height: 40px; display: flex; align-items: center; justify-content: center;">을</div> </div> <div style="margin-top: 10px; text-align: right;">                 &lt;범례&gt;                  → : 비판의 방향                  A, B : 비판의 내용             </div> <div style="margin-top: 10px; text-align: right;">                 &lt;예시&gt;                    A는 갑이 을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임.             </div>

- ① A: 유교적 가치로써 민족 주체성과 국민을 지켜야 함을 간과한다.
- ② A: 모든 사람은 한울님을 모시고 있으며 평등함을 간과한다.
- ③ B: 욕심을 거두고 하늘[天]을 공경하는 삶을 살아야 함을 간과한다.
- ④ B: 인의예지를 지키는 한에서 서양 문물을 받아들여야 함을 간과한다.
- ⑤ B: 나라를 지키기 위해[輔國] 외세에 저항해야 함을 간과한다.

20. 현대 사회사상가 갑,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갑: 시민의 공적 심의는 민주주의의 기본 특징이다. 시민은 정치 문제에 관하여 심의할 때, 의견을 교환하고 지지 근거를 토론하며, 자신의 의견이 토론을 통해 수정되는 것을 수용한다.  
 을: 민주주의는 시민이 실제로 통치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으며 의미할 수도 없다. 민주주의의 과정은 유권자의 표를 얻기 위해 지도자 후보들이 벌이는 자유 경쟁이다.

- ① 갑: 시민은 정치적 문제에 대해 이성적으로 숙고할 능력이 없다.
- ② 갑: 정치적 선택은 시민들의 공적 심의를 거쳐 내려져야 한다.
- ③ 을: 시민은 자신들의 지도자를 선택할 권리를 가질 수 없다.
- ④ 을: 시민이 정치인을 수시로 간섭할 수 있어야 바람직한 민주주의가 실현된다.
- ⑤ 갑과 을: 민주주의는 정치인에 의한 지배가 아니라 시민에 의한 지배이다.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 하시오.
- 이 문제지의 저작권은 강수영에게 있습니다.